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행정

- (한국) 수요맞춤형 귀농귀촌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전남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사례
-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코로나19 대처 실태와 일본의 감염자 급감
- (미국) Houston 지역의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The Way Home Continuum of Care(CoC)
- (독일) 망각에 맞서는 방법: 아헨(Aachen)시의 역사 프로젝트

망각에 맞서는 방법 : 아헨(Aachen)시의 역사 프로젝트

개요

- 독일은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만행을 반성하고 기억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에서는 연방총리와 대통령이 주변국에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를 쌓는 보여주고 있음
- 물론 이러한 사과와 과거사 청산의 대상이 유대계와 주변 서방 열강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의 거리에 설치된 슈톨퍼슈타인(Stolperstein)¹⁾이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과거사 반성을 위한 프로젝트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아헨(Aachen)시의 “Wege gegen das Vergessen 1933-1945”(망각에 맞서는 방법 1933-1945)가 있음

프로젝트의 역사

- Wege gegen das Vergessen 1933-1945 프로젝트는 아헨시에서 마치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 시민들과 정당들에 의해 제안되었고, 1996년 10월 기민련, 사민당, 녹색당의 동의로 시의회에서 승인되었음

1) '걸림돌'이라는 의미로 주로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이름과 생몰년을 거리의 바닥에 10cm 정도 크기의 포석으로 설치한 것임.



1933 Wege gegen das Vergessen 1945 Aachen



| 그림 1 | Wege gegen das Vergessen 프로젝트의 로고

- 이 프로젝트는 1997년 아헨 시민대학(Volkshochschule)으로 이관되어 진행되었고, 2004년에는 공식적으로 아헨시의 재정지원이 시작되었음
- 2008년부터 이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나치 시대와 현재의 극우주의를 기억하는 지역의 정치 활동의 역량센터로 인정받기 시작했음
- 프로젝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나치 시대 증인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학생과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관광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나치 독재정권에 의해 박해받거나 정치, 인종차별, 이념, 종교의 이유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함임
- 시민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40곳 이상의 장소에 기념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 현재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 중임
- 또한, 아헨시의 관광 사무소와 시민대학에서 설치된 기념물을 따라 관광할 수 있는 시티투어 및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기념패는 아헨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 Aachen)의 디자이너 클라우스 엔드리카트(Klaus Endrikat)가 디자인을 맡아 대부분은 건물의 벽에 설치되어 슈톨퍼슈타인이 바닥에 설치된 것과는 달리 더욱 눈에 잘 띄도록 제작되었음

주요 설치 장소 및 내용

- 2021년 11월 현재 총 39개의 기념패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기념패의 설치 장소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장소	기념패	내용
아헨 중앙역		<p>“1933년부터 아헨 중앙역은 많은 사람이 나치로 부터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역이었다. 그들은 벨기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으로 탈출했다. 이 역은 많은 사람에게 납치 및 추방의 첫 번째 역이기도 했다. 1942년부터 대부분의 유대인 아헨시민들이 수용소 등으로 추방되었다.”</p>
구 정부청사		<p>“이 건물에는 1933년부터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 사무실이 있었다. 나치에 의해 박해받을 사람들은 감옥과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에 이곳에서 구금되고 심문받고 학대당했다.”</p>

장소	기념패	내용
<p>몬하임거리</p>		<p>“이곳에 안네 프랑크가 1933년 6월부터 1934년 1월까지 머물렀던 집이 있었다. 그의 가족이 나치를 피해 암스테르담으로 탈출했을 때 이곳에서 그의 할머니 로자 홀렌더-슈테른(Rosa Holländer-Stern)씨와 몇 달간 거주했다.”</p>
<p>발트프리드호프 대십자비</p>		<p>“독일의 권력욕은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2차대전에만 6천2백만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4천 명 이상의 아헨시민들이 나치 독일 군인으로 징집되어 목숨을 잃었고, 2,5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p>

관리와 교육

- 아헨시에서는 매년 11월 14일 국민애도일(Volkstrauentag)을 망각에 맞서는 방법 프로젝트의 기념일로 동시에 지정하여 기념과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음
- 시민대학에서는 반기별로 10회가량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직접 기념패가 설치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강의실에서 강연, 시청각 자료 및 사료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27. Januar – Holocaustgedenktag:
Damals verfolgt – heute vergessen
Vortrag
 Der 27. Januar ist der Gedenktag für alle Opfer des national-sozialistischen Deutschlands, denn an diesem Tag im Jahr 1945 wurden die Häftlinge aus dem Konzentrationslager Auschwitz befreit. Seit mehr als 20 Jahren kommen zahlreiche Institutionen und Initiativen, aber auch Vertreter*innen der damaligen Opfergruppen an diesem Tag zusammen, um die Erinnerung an die Shoah wachzuhalten und sich mit Antisemitismus und Rassismus zu beschäftigen.
 Nachdem im letzten Jahr die Oral History und Zeitzeug*innengespräche im Mittelpunkt gestanden haben, werden wir in diesem Jahr den Fokus auf die *Zweitzeug*innen* legen. Hierzu wird es einen Vortrag von *Zweitzeugen e. V.* geben.
Dr. Holger A. Dux, Yvonne Hugot-Zgodda, Zweitzeugen e. V.
 212-04019
 27. Januar 2022
 Do 18–19.30 Uhr · Kein Entgelt
 vhs, Peterstraße 21–25, Forum

Veranstaltungen zum Thema *1700 Jahre jüdisches Leben in Deutschland* finden Sie in unserem gleichnamigen Flyer sowie im Programmheft 2/2021.

Bitte vergewissern Sie sich auf unserer Website, dass die Informationen zu den angegebenen Veranstaltungen aktuell sind:
www.vhs-aachen.de/programm/politik-gesellschaft/

Information

Dr. Holger A. Dux
 Telefon: +49 241 4792-172
 E-Mail: holger.dux@mail.aachen.de

Anmeldung

Volkshochschule Aachen
 Peterstraße 21–25
 Telefon: +49 241 4792-111
 Telefax: +49 241 406023
 E-Mail: vhs@mail.aachen.de



Ausstellung, Film, Rundgänge, Vorträge

www.vhs-aachen.de



자료: VHS Aachen

| 그림 2 | 2021년 하반기 Wege gegen das Vergessen 프로젝트의 교육프로그램 홍보물의 일부

- 동시에 우익 극단주의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우익 극단주의,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교육은 당시의 나치 독일을 탄생하게 했던 일반 독일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음. 당시에는 추종했고 지금은 잊었다(damals verfolgt – heute vergessen)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

시사점

- 아헨시의 망각에 맞서는 방법 프로젝트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과 반성, 특히 나치 독일 시대를 비롯한 잘못된 역사에 대한 기억으로 지방의 도시 차원에서 끊임없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지역의 시민대학을 통해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와 건전한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는 연방선거, 지방선거의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5년 유럽 난민 사태로 극우정당이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고, 구 동독지역에 극우정당이 제1야당²⁾으로 선출되기도 했지만, 아헨 지역은 5% 미만의 득표율로 유권자들이 극우정당에 의미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장인성 통신원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drong85@naver.com

2) 극우정당이 제1야당으로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독일의 정치에서는 극우주의에 대한 경계로 암묵적으로 연정에서 배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임. 대표적으로 2019년 튀링겐(Thüringen) 주 주지사 선거 때 극우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자 전국적으로 비난이 일어 재선거했던 사례가 있음